"재가 신행 지침, 한국불교 생존전략"

한국불교학회, 16일 재가불자 신행지침 토론회

법이 오래 머무는 길, '계율'
공통 재가 신행지침, 결속력
가정 불단 운동 일어나야 해
정기 포럼 및 종단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 반드시 필요해

경주=하성미 기자

재가불자를 위한 공통 신행지침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지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재가 신행지침은 불교 수행의 일상화를 이끌어내며 결집력을 강화해 미래 한국 불교의 존폐를 가름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8월 16일~17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금당생활관 법당에서 2018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하고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성철 회장(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은 토론회를 열며 재가자의 신행지침은 미래 불교 존재 가능성을 내다보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교수는 "〈사문율〉에서 계율 제정의 10가지 의의 가운데 불법(佛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불교 이외 다른 종교의 활동만 봐도 간단한 신행 지침을 지키는 활동이 결집력을 모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불교학회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와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하는 활동가의 발표를 통해 재가 수행 지침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10년 동안 미얀마에서 수행을 이어 온 현암 스님은 "미얀마는 삼귀의와 오계를 기본적으로 지키며 불단이 각 가정마다 있어 예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교의 생활화를 이뤘다"며 "아울러 한 달에 4번 정기적으로 포살을 지키고 8계를 수지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승규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과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 원장은 티베트 불교의 가정 불단 활용에 주목했다.

양승규 원구원은 "하루 시작을 부처님께 청수와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연다"며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불단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8월 16일부터 1박 2일 간 2018 하계워크숍을 열고 '재가불자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박은정 원장은 "한국불교는 참선 수행을 중시해 스님들에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듣거나 지속적인 지도를 만나기가 어렵다"면서 "티베트 불교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지역에 있는 사원에서 스승을 만나고 수행 지침을 받는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은 계학을 강조하며 재가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중들도 재가불자를 위한 신행 지침 마련에 적극 동의했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자신이 실천하는 관혼상제를 예를 들며 "집에서 제사를 육법공양으로 지낸다. 지금이라도 관혼상제를 불교식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교의례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재가자는 "재가자들도 식사시에 게송을 외우고 평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행 지침 마련을 위해 경전 공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에 참여한 해피 스님은 "한국불교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통불교라 부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통된 신행 지침이 없어 결집력을 갖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며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된 공통 신행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국회 출입기자 포럼 회장도 "신행지침 토론을 지속적으로 열어 지침을 구성 제안하고 종단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김성철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불교권의 재가불자들은 자신의 집에 불단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마련해야 그 후 비로소 지계의 다짐, 기도, 참회 등등 재가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좋은 신행지침을 끌어내고 종단에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논문발표회가 열렸으며, 8월 17일에는 황룡사지, 감은사지 등 불교유적 답사가 진행됐다.

빠리사학교 개척법사 · 강사 수료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는 8월 24일 제1기 개척법사 과정 및 제2기 개척강사 수료식을 개최했다. 1기 개척법사로는 신기윤 조화제 진철희 조명숙 민병직 씨가 수료했으며 2기 개척강사로는 변혁주, 이기석 씨가 수료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리모델에 조화제 법사(서울대불교동문회 회장), 수행모델 신기윤 법사(전 행정차치부 불자회 회장), 전법모델 진철희 법사(경기불교문화원 원장), 봉사모델 조명숙 법사(불광법회 봉사 리더), 사회적 역할모델 민병직 법사(용인삼가초등학교 교장) 등이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김재영 지도법사의 진행 하에 토론이 이뤄졌다.

빠리사학교 측은 "불교계가 크게 혁신의 과제를 끌어안고 부심하는 마당에, 재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교학과 신행모델도 쇄신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척법사과정 수료자들은 '우리 불교의 실천적 혁신모델'을 주제로 5개 분야별 모델을 정리해 발표했다.

한편,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는 9월 14일부터 제3기 빠리사학교 개척법사 과정을 개강한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제16차 8재계 수계법회 봉행

강홍원 前 포교사단장, 총무원장상 수상

9월 8~9일 김제 금산사서



전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계와 함께 전법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결집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제16차 8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8재계 수계법회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몸을 치장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등 8가지 계율 실천을 다짐하며 포교사로서 지계정신과 신행을 점검하는 법회다.

특히 수계법회는 9월 8일 오후 7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제12기 전문포교사 및 제23기 일반포교사 품수식, 8재계 수계식, 철야정진과 5㎞걷기명상, 새벽예불, 회향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무박 2일의 출가경험으로 포교사 원력을 다시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며 또 5km 숲길을 걷는 걷기명상도 진행돼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관계자는 "방등계단이 있는 금산사는 지계실천 대회의 의미가 잘 연결된다. 8재계를 통해 전북지역의 낙후된 불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교사 발전을 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에서 진행되는 포교사 표창에는 대상인 총무원장상으로 자현 강홍원 포교사〈사진〉가 선정됐다.

강홍원 포교사는 제5대 포교사단장을 역임했다. 강 포교사는 죽전 서봉사, 과천 통혜사 등 지역 사찰과 용인지역팀 등을 조직화하고 불교의식 소양교육 등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선센터 · 진관사, '유니크 베뉴' 선정

도심 위치 · 수행공간 · 숙박
문화체험 · 현대적 시설 등 호평

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이벤트와 전시 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의 '유니크 베뉴(Unique Vanue)' 부문에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최근 서울지역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사찰을 '유니크 베뉴' 회원사로 신청하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심사를 거쳐 8월 14일 최종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 베뉴'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때 회의 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마이스 개최지의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국제선센터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전통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다르마 토크'는 명상 집중 템플스테이로 인기가 높으며, 기업 및 단체연수 등 템플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니크 베뉴 부문에 선정된 국제선센터는 외국인 대상 명상 집중 템플스테이로 인기가 높다.

진관사는 사찰음식 명장 2호인 계호스님이 주지로 있어 사찰음식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두 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가는 수행공간이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해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문화체험 · 숙박 · 회의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크 베뉴' 회원사는 마이스 산업에 소개되는 다국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포함되며, 회원사 대상 교육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서울 유니크 베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에 외국인 참가자당 1만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국제선센터, 진관사와 함께 마이스 산업을 통해 한국을 찾는 인센티브 단체 및 국제회의 등을 적극 유치해 템플스테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국제선센터와 진관사의 유니크 베뉴 선정을 축하하며, 문화사업단은 마이스 산업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국내외에 소개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해남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밴드 나온다

해남 지역 장애인 밴드가 출범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흥사 산하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보련)은 8월 22일 복지관 강당서 예술단 '고구마(GGM)'의 보컬 모집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날 총 9명의 참가자가 오디션에 도전해 각양각색의 기량을 뽐냈다. 행사는 시각장애인 가수 장지웅 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보컬 오디션, 스티커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관장 보련 스님은 "해남 최초로 결성 중에 있는 장애인 밴드 고구마(GG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기획해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 특산물서 이름을 딴 '고구마(GGM)'는 멤버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이다. 복지관 기관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관은 밴드 사업의 일환으로 악기 기부 및 후원자를 모집 중이다. (061)536-6311

김지원 수습기자

